

# 보전부담금 시름했던 전통사찰 제한구역 '불사' 숨통 트였다

## 건축물 보전부담금 면제 관련 개정안 국회통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은 사찰 불사를 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부담되는 보전부담금 때문이다.

서울 진관사의 경우 373m<sup>2</sup>(113평)규모의 템플스테이 시설을 짓고 부담금 1억 3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당초 부담금은 7억 원을 초과했지만, 항공사진을 통해 기존 건물지를 확인해 감면받았다. 서울 금선사는 60여m<sup>2</sup>(20여 평) 증축불사를 하면서 보전부담금으로 2억여 원이 부과됐다. 이는 증축불사 금액과 맞먹는 금액이어서 결국 불사는 미뤄졌다.

서울 학도암의 경우 요사채와 식당 등 430m<sup>2</sup>(130평)를 정비하고 4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이 떨어져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어려웠던 전통사찰 증축불사에 숨통이 트였다. 불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전통사찰과 문

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건축행위 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빠르면 오는 5월 중순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들

수익원 씩 부담금 폭탄 '시름'

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 개정

전통·문화재 사찰 부담금 면제

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해 건축행위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없음'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 시행 당시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사찰이 전통문화발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돼 일부 사찰이 불사를 포기하거나 보류해 왔다.

조계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생업을 위한 시설'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면서도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의 주거·생활편의 등의 행위에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해소와 보수·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억제,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포함됐지만, 수정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해소와 보수·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향후 전통문화의 발전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시공원제도, 자연공원제도, 기타 각종 규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개정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2주기 추모 다례제가 4월 29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거행 됐다. 주지 혜원 스님과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현향·헌다를 하고 있다.

## “모든 것 자기 마음자리에 맡기고...”

###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2주기 추모제... 5000여 대중 참석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2주기 추모 다례제가 4월 29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거행 됐다.

이날 다례제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봉녕사 승가대 학장 도례 스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진주·독일 지원 등 25개 지원에서 온 사부대중 5000여명이 대행 스님의 열반 2주기를 추모했다.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사부대중이 삼배를 한 후, 문도 스님들은 헌다·헌

화·헌향을 올렸다.

이후 청산스님의 집전으로 조사영반 불공 후 본원 및 각 지원 신도회장의 헌화가 이어졌다. 이어서 대행 스님 육성법문과 추모기념영상상영 및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육성법문에서 대행 스님은 "도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원인이 어딴가 알아야 한다. 산에 올라가는데 풀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다. 본래 우리들 제각기 풀이 있다. 그걸 잡고 그 언덕을 넘어야 된다"라며 "그 풀

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렵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이걸 떠나서 하다못해 물고기와 같은 생명들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라고 강조했다.

추모기념영상에서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각 지원 신도들의 인터뷰 영상을 담았다.

이어 주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인용해 "모든 건 다 자기 마음자리에 맡겨 놓고 그 줄만 붙들고 가라"고 당부했으며, 다례제 후 신도들은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과 부도담을 참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불교, '도-농 상생' 농산물 장터를 열다

해남·화천군 특산물 장터 조계사, 5일까지 진행해

인드라망,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 큰장터·생협 교육 열어



서울 종로 조계사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농간 상생을 도모하는 향토 먹거리 장터를 개최했다.

도-농간 상생이 해묵은 사회 과제가 된 지금, 불교계가 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주선하는 장터를 잇달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내 도심포교백주년 기념관 주차장 부지에서 향토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장터에는 해남, 화천, 강진군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판매 부스에는 법회를 마친 불자와 출퇴근 시민들이 찾았다. 부스 관계자는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구매해줘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

는 도심 사찰에서 이 같이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장터를 열게 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의 마을 큰장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인드라망은 4월 29일 서울 양천구 인드라망 교육도량 앞에서 '인드라망 마을큰장터'를 개최했다. 장터에는 생산자들이 순수 기원 친환경 농·축산물을 비롯해 직접 증고물품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장터, 바느질 소모임 '코팜'의 수제 바느질 제품 판매, 협동조합 서촌 공방의 수제 물품들이 판매됐다.

이에 앞서 교육도량 3층 법당에서는 베란다·옥상 텃밭 가꾸기 특강도 진행됐다. 인드라망은 향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인드라망 마을큰장터'를 열어 도-농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로그램도 확대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BTN불교TV 방송 제작역량평가 '우수'

방통위, 2013년도 평가 결과... "프로세스 매우 우수"

BTN불교텔레비전(사장 구본일)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방송채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 '우수' PP업체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월 25일 2013년도 등록PP대상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불교TV는 세 가지 평가 항목 가운데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에서 '매우 우수'를, 자원 경쟁력 분야에서 '우수'를 받아 전체 총점에서 '우수'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는 제작과 유통경

쟁력, 자원 경쟁력 분야는 인적·물적 자원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교TV는 CTS기독교TV와 함께 종교분야에서 '매우 우수' PP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불교TV가 지속적인 인력 및 장비투자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들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불교TV는 채널OCGV, 수퍼액션, OCN, MBC 에브리원, 투니버스 등 경쟁력 채널들과 우수PP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우수PP로 선정된 33개 채널 가운

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에 비해 인력과 자원 면에서 열악한 불교TV와 같은 개별PP가 16개(48%)나 포함돼 중소기업도 제작역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 등 세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이번 평가에는 93개 사업자 134개 채널이 참여했다.

한편, BTN불교TV 구본일 대표는 지난 3월 18일 종교방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부처님의 위대한 실체, 인간 영혼체의 비밀, 무아론의 바른 이해,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을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을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님들의 신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분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울분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